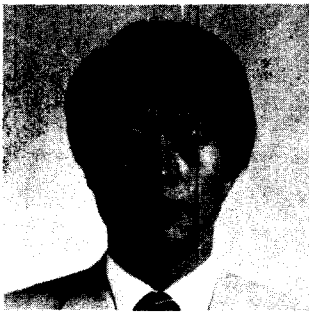


우리나라 經濟 國際化에 따른 企業의 對應



李 珠 熙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경영학박사)

■ 目 次 ■

- I. 머리 말
- II. 1990년대 기업환경의 변화
 - 1. 地球經濟化 (Grobalization)
 - 2. 세계경제의 다극화
 - 3. 세계경제의 중심이동
 - 4. 보호주의의 팽배와 시장개방압력
 - 5. 원화절상
 - 6. 후발개도국의 추격
 - 7. 기술혁신
- III. 기업의 대응
 - 1. 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
 - 2. 기술혁신에의 노력
- IV. 맺 음 말

I. 머리 말

우리 경제는 4반세기 동안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동안 연평균 8%가 넘는 경제성장으로 1인당 GNP는 2500달러에 이르렀고, 수출규모 또한 62년에 5,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87년에는 47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요인으로는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근면성,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강렬한 의욕 등을 꼽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우리의 해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이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개척보다는 안주에, 도전보다는 회피를 앞세워 왔으며, 문제의 적극적 해결보다는 체념에 흐르는 경향을 보여왔다. 근세에 와서는 세계 열강의 이해에 따라 역사적 희생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적극적 해외지향적 정책을 추구해 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은둔국과 전쟁의 폐허로만 인식되어 왔던 존재에서 주목을 받는 신흥공업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오늘날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교역량은 자유세계교역량의 1.8%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사회는 두 개의 커다란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화의 물결이요, 다른 하나는 국제화의 물결이다. 두가지 흐름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가 시급하고 중차대한 변혁이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셈이다.

현재 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 국제화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국제화의 물결은 그 영향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국제화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 각국은 냉혹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력에 의한 영토의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의 지배이었다면 오늘날은 교역에 의한 國富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에 의해 각국의 지위가 결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은 동서 양진영의 이해에 연관되어 안보에 자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매년 신규로 늘어나는 노동인구만 해도 약 40만 명에 달한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 많은 인구, 높은 교육수준 등은 우리를 국제무대로 나서게 할 수 밖에 없다. 국제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II. 1990년대 기업환경의 변화

1 地球經濟化 (Grobalization)

지금까지의 선진국 대기업들이 추진해 왔던 기업의 다국적화전략이 세계각국에 있어서 自己完結인 독자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구기업화 전략'은 지구를 하나의 원료조달지,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 보고 1) 가장 유리한 곳에서 자원 및 부품을 조달하고 2) 가장 유리한 곳에서 조립, 가공, 제조를 한 다음 3) 가장 유리한 곳에서 판매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는 이른바 자원 및 부품조달, 생산, 판매의 상호연계전략이다.

自社內의 다각화를 통해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범위의 경제 (Scope Economy) 단계를 거쳐 다음 단계로 자국내에서는 국제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분야의 기업활동만 하고 다른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국제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분

야와 상호유기적으로 제휴연결하여 각국의 가장 높은 국제비교우위 분야만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업형태이다.

부품조달과 OEM방식에 의한 생산거점의 세계적 확산은 세계경제가 상호독립적이고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지구경제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통신과 전파매체의 발달과 보급은 지구경제화를 가일층 촉진시켜 기업활동의 동시화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종전처럼 국가간의 상품교역, 자본이동, 기술이전이나 용역이동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게 되었다.

2 세계경제의 다극화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저하로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저성장, 무역적자확대, 대외채무누적, 제조업의 비교우위상실 등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와 엔화 및 유럽통화의 강세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일본, 유럽국가들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신흥공업국의 부상도 세계 경제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세계 경제의 중심 이동

세계 경제는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서양시대와 미국시대를 거쳐 이제 태평양시대를 맞이하는 등 큰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이 태평양시대는 최근 韓-中-日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대로 불려지고도 있다.

그동안 폐쇄사회로 남아 있었던 중국은 78년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왔으며 종래의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일본시장이 미국과 E-C의 압력에 따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쪽에는 풍부한 자원과 개발의욕을 가진 ASEAN 국가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새로 개발되기 시작한 중국시장과 거대한 일본시장을 ASEAN과 연계시켜 활용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호주의의 팽배와 시장개방 압력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 이와같은 규제는 무역의 신장을 저해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침체시킨다. 오늘날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비판세장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각종 쿼터,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있고 자율규제 등으로 신흥공업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상대국의 자유, 공정무역의 확대를 요구하며 시장개방, 환율조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기록을 갱신하자 미국을 비롯하여 EC등으로부터 상품, 자본, 금융, 서비스 등 전산업에 걸쳐 개방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1988년까지 수입자율화율은 95.4%로 제고되어 선진국 수준의 전면 수입자유화가 달성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도 100여 업종이 추가로 문호개방되며 자본시장도 1990년대 부터 자유화될 예정이다. 물질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개방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경쟁만 위주로 하였던 산업부문도 외국기업들과 가격, 품질 등 모든 면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 원화절상

우리나라는 82년부터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래 계속적으로 흑자폭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94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원화는 80년부터 85년 9월까지 미 달러화에 대해 연평균 9.35% 평가절하하여 대미환율이 53.7% 오른 891.7원을 고비로 평가절상으로 반전하여 작년말까지 11.2%가 절상되었다. 미국은 86년 9월 원화절상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한 이후 원화절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15-20%의 절상폭을 제시하고 있다.

원화가 평가절상되면 수출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이 증대되며 수출의존도가 GNP의 40%나 되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며 환차익을 겨냥한 핫머니(hot money)의 유입도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원화절상은 외채상환부담이 경감되며 수입물가의 하락으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교역상대국의 다변화를 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6 후발개도국의 추격

한국경제는 섬유, 신발, 생활용품 등 경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후발개도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이 서방선진국을 추격, 추월한 것이나 우리나라와 대만 등의 신흥공업국들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선진국의 경쟁력 상실산업에 대한 집착과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로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의 결과를 초래하였던 전철을 거울삼아, 비교열위 및 사양산업에 대해 국제분업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히 후발개도국에 이양하고 비교우

위산업으로 특화하여야 할 것이다.

7 기술혁신

기술혁신은 산업의 질적, 양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고도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공학, 신소재, 생물공학 분야 등에서 개발경쟁을 하고 매우 광범위한 산업에 이들 신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그 산업이 성장, 성숙단계로 거친 후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기존산업은 사양화되는 산업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며 기술혁신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 후진국간 기술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자공학과 정보처리능력의 발전에 따라 공장자동화(FA)와 사무자동화(OA) 현상은 선진국이 그동안 비교우위를 상실하여 온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의 새로운 비교우위 가능성을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보유천연자원간에는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는데 근래의 소재공학의 발달은 천연자원의 유무와 경제발전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예로 일본은 1986년 1천 8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는데 수출상품에 소요된 원자재중 천연자원은 60%, 인공자원이 40%에 달했다.

Ⅲ. 기업의 대응

1 기업의 적극적 해외진출

기업이 국제화하는 방법은 무역에서 해외직접투자까지 광범위하다. 무역은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국제진출 형태이다. 그러나 무역의 경우에도 간접수출, 직접수출, 해외지사 또

는 자회사를 통한 수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수출이란 수출업자, 수출대리상, 수출조합 등을 통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과 관련되는 주요 기능을 제조업체가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것이다. 직접수출은 제조회사나 무역회사가 직접 해외의 수입상이나 중간상에게 수출하는 경우이다. 해외 자회사를 통한 수출은 직접수출의 일종으로서 해외에 제품판매를 담당할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치해서 현지의 판매경로에 한단계 더 개입해 들어가는 보다 발달된 형태의 수출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수출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에는 그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관세가 아주 높은 나라에는 수출은 가능하여도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에서 가격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 현지생산을 하는 동기는 관세의 절감과 무역장벽을 뛰어넘고 또 이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목적과 생산관리상의 이점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수출에 따르는 수송 및 저장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현지기업으로도 인식될 수 있으므로 판매에 대한 현지인의 저항감도 감소시킬 수 있고, 현지국 정부가 부여하는 금융, 조세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현지생산, 현지판매라는 해외직접투자는 적지 않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위험부담이 크다. 더구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국유화의 위험등 정치적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언어와 관습의 차이등에 따른 어려움이 뒤따르며, 이에 따라 경영관리도 복잡해진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수출방법이 항상 최선의 해외시장 진출방법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국 또는 더 나아가서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도 폭넓게 검토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서의 가공, 조립 또는 배급의 비교적 단순한 제조 활동을 거쳐 원료나 부품까지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원료나 부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려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지에서의 생산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후에 본격적인 생산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그만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제화 전략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소유형태로서의 단독투자와 합작투자의 선택, 그리고 진출수단으로서의 새로운 기업창립과 기존기업의 인수와의 선택문제이다.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소유형태는 대부분 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합작투자의 경우 경영권의 분담으로 야기될 수 있는 파트너간 갈등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운영상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합작투자는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우리나라 기업을 보완해 줄 동반자를 자연스럽게 짝짓게 하고, 상대 파트너의 세계적 판매망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전개하기 때문에 초기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호무역장벽을 가장 합리적으로 뛰어 넘을 수 있는 탄력을 부여한다. 그 외에도 선진국 수준의 경영관리기법, 고급기술과 노하우를 유입하거나 정치

적 영향력 행사 등이 가능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수단으로는 기존산업의 인수와 기업창립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기존기업의 인수의 장점은 이미 제품과 시장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존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신속하게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존기업의 인수는 비교적 시장 진출이 늦은 후발 기업들에 적합한 전략으로써 기존기업의 관리적, 기술적 차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투자기업이 구비하지 못한 제품라인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기업의 인수는 부실기업 내지 부적합 기업을 인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인수대상 기업의 선정과 평가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과거 25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해외투자를 크게 4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 단계는 60년대 중반부터 75년 까지이다. 이 기간은 한국기업의 대외투자활동이 거의 없었다. 60년대 말부터 해외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생겨났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규제할 법규가 없었고 외화사용을 통제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2 단계는 75년부터 80년까지 기간으로 정부는 해외투자가 국제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긴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의 대외 투자규정을 크게 완화하였다. 이 기간 중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자원확보와 해외지사 설치 등이었다. 78년 이후 해외투자를 투자금지, 적극장려, 제한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포항제철이 미국의 탄광에 투자하는 등 원자재 확보가 두드러지고 해외지점과 해외판매망의 구축이 많았다.

세번째 단계는 81년부터이다. 1981년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제한들이 자유화되었다. 이때부터 기업들은 생산시설과 하이테크산업과 같

은 새로운 유형의 투자대상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호무역장벽을 피할 수 있고 국제경영기법을 익히며 특정한 국내시장에 깊게 연관되어 직접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당시의 해외투자는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전자산업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실리콘밸리 등 연구개발지역에 진출하거나 미국기업을 사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네번째 단계는 86년에 시작되었다. 무역흑자로의 전환이라는 경제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무역흑자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정책 전환을 촉진하였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기업들로 미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취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외로 직접 나서야 하게 되었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방식 이외에도 라이선

싱계약이나 R & D의 공동추진을 위한 기업연합 등도 훌륭한 국제화 전략의 하나이며 직접 자본 참가를 전제하지 않는 소위 전략 제휴(strategic partnership) 등과 같은 제반의 해외기업들과의 협력관계 등도 국제화를 추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은 해외시장진출의 목적, 기업의 규모와 경영능력, 그리고 축적된 해외시장 진출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에 제품 및 진출대상국의 특성에 따라 활용가능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술혁신에의 노력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기업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쟁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경영혁신중에서도 신기술개발에 의한

〈표 1〉 한국과 주요투자국의 해외직접투자 활동비교

구분 투자국별	투자금액 (미10억달러)	투자금액 ¹⁾ 연평균증가율 (%)	對GNP ²⁾ 비율(%)	해외투자의 ³⁾ 對국내총고정 자본형성비율(%)	해외투자의 ³⁾ 對수출액비율 (%)
한 국	1979	0.15		0.2	
	1987	0.97	27.1	0.8	0.4
일 본	1971	4.40		1.8	
	1985	44.00	17.9	3.3	1.0
미 국	1971	82.80		8.2	
	1985	232.70	7.7	5.8	0.6
서 독	1971	7.30		3.1	
	1985	52.40	15.1	8.4	3.3
영 국	1971	23.70		16.0	
	1985	116.90	12.1	25.4	11.1

주 : 1) 투자금액의 연평균증가율은 둘째열에 표시된 기간 동안에 한함.

2) 對GNP비율은 각 연도말의 해외직접투자의 당해년 국내총생산 비율임.

3) 對국내고정자본형성 및 수출액 증가비율은 한국의 경우 1985~87년 기간의 실적액 비율이며, 주요 투자국의 경우는 1983~85년 기간의 실적액 비율임.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JETRO 백서 투자편』 각 연도판, 경제기획원 『주요해외 경제지표』 1987.

〈표 2〉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조

(단위 : 건, 백만달러)

업종별	1968~79			1980~87			1987년말 현재잔액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광업	3	1.4	0.9	13	519.0	49.5	14	397.0	41.1
임업	8	26.5	17.9	4	49.1	4.7	9	54.8	5.7
수산업	31	10.3	7.0	22	8.8	0.8	28	12.2	1.3
제조업	24	27.9	18.9	105	302.8	28.9	111	314.4	32.5
무역업	184	27.0	18.3	173	87.7	8.4	251	94.9	9.8
건설업	28	20.0	13.5	43	34.1	3.3	47	31.3	3.2
운수보관업, 기타	41	34.7	23.5	66	46.2	4.4	72	61.5	6.4
합계	319	147.8	100.0	426	1,047.7	100.0	534	966.1	100.0

자료 : 한국은행, 「주간내외경제」 각판.

〈표 3〉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조

(단위 : 건, 백만달러)

국별	1968~79			1980~87			1987년말 현재잔액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북미	106	30.0	20.3	174	411.5	39.3	207	397.3	41.1
유럽	48	5.2	3.5	30	20.9	2.0	52	23.2	2.4
대양주	6	2.0	1.4	26	104.2	10.0	25	85.2	8.8
동남아	96	69.3	46.9	112	215.8	20.6	153	249.6	25.9
중동	23	10.8	7.3	30	187.0	17.8	34	182.9	18.9
중남미	21	5.6	3.8	37	104.1	9.9	43	16.3	1.7
아프리카	19	24.9	16.8	17	4.2	0.4	20	11.6	1.2
합계	319	147.8	100.0	426	1,047.7	100.0	534	966.1	100.0

자료 : 〈표 2〉와 같음.

기업경쟁력 제고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임금인상에 따른 원가상승과 원화절상에 의한 채산성 악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제품의 등장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개발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투자성장에 대한 측정이 매우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신기술 개발투자는 그 자체가 어떤 상품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가격과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다른 투자대안에 비해 성공가능성이 낮으나 일단 성공하면 매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에는 고급인력과 첨단연구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가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으로써 기존제품과 다른 혁신적인 용도나 성능을 지니는 신제품 개발을 말한다. 또 다른 하나는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써 기존제품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 및 성능의 개선과 불량율 감소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말한다. 제품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은 공정혁신에 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성공가능성이 낮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일단 성공하면 시장 지배력과 기대수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변화와 신제품 출현이 빈번한 기술집약형 제품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는 제품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숙한 산업분야에 속하는 제품으로써 제품의 수명주기가 비교적 길고 수요가 꾸준한 기업에서는 공정혁신에 주안점을 둔 기술투자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높은 위험부담에서 높은 수익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을 찾는 생산적인 모험을 무릅쓰는 企業家라야 한다.

IV. 맺음 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국제화의 시대라고 특징지을 수 있고 우리세대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상호의존적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수출로부터 해외직접투자에 이르는 국제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호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세계속에서 기업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또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로 하는 자본, 기술, 원자재, 에너지 등 기업자원과 시장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필요로 하는 기업자원을 해외로부터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서도 세계시장을 잘 활용하고 또한 세계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도 기업자원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시야와 시각을 국제사회로 돌리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국제사회의 다양성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확대시켜야 한다.